

사진

산책



남산 후암동

중간

디지털과
아날로그의 중간.
일상과 섬의
중간 같은 사진.
특정 주제나 내용에
치우치지 않는
누구나 공감할 수
있는 사진

이호준 Lee, Ho-Joon

·언론학박사 · ighwns@hanmail.net

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박사 학위를
취득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
네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5회를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집
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다.

사진 찍기는 세상에 틀(Frame)을 씌우는 행위다. 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일이다. 그 안과 밖은 전혀 다른, 반대의 세상이다. 틀 씌우기는 사진 이미지에 생명과 힘을 부여한다. 그래서 사진 촬영에 나설 때는 항상 사각형 틀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. 사진가의 의도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설사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진은 종종 세상의 이면을 드러내고, 낯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.

미학 측면에서도 틀 씌우기는 중요하다. 틀 안에 무엇을 넣고, 무엇을 밖으로 밀어내 배제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작품성이 결정된다. 주목하는 대상, 핵심 포인트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. 주 피사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사소한 대상을 살피고 사각형 틀 안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. 그 고민이 섬세하고 깊을수록 사진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다.



영등포 신길역